

성막을 알고싶냐?



‘그것이 알고싶냐’

사회자

지난 주 우리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은 오늘날의 계약과 같은 것인데 만약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제안을 듣게 된 이스라엘백성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잘 듣겠습니다.

사회자

라고 응답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구약박사

이 사건을 시내산계약 또는 시내산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모두 그렇게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사회자

시내산계약의 핵심조항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듣고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본 이스라엘백성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진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 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제작진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시 시내산계약의 중개자였던 모세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모세

당시 저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했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가까이 가더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기절할만큼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시내산에 오를 때 무척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그 두려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 이렇게나 두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야 너는 내가 보여주는 설계와 디자인 그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여라.

모세 내가 그 성막 안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쉽게 말해서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이스라엘백성들과 동행하실 텐트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천막 안에 거할 테니 너무 두려워말라는 것이기도 했죠.
동시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곁에 둔다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와 모양은 이렇습니다.
우선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의 크기는
길이가 약 45m 너비가 약 22m이며 높이가 2m 정도였습니다.
이 울타리는 주변 이스라엘진과 구별시키고
성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죠.
즉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오직 동쪽에 난 출입문으로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출입문을 통해 성막뜰로 들어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약 2m정도 되는 이 제단은 아카시아나무로
틀을 만들고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놋쇠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나무는 뒤틀려진 나뭇가지와
가시로 인해 다루기 매우 어렵고 좋지 않은 목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기 어렵고 빈약한 아카시아나무를
사용하셔서 그의 제사, 예배의 주역으로 쓰신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 동시에 감격하였습니다.
우리도 아카시아나무처럼 가시가 많아 다루기 어렵고
제멋대로 뒤틀려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제단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거의 모든 제사가 바로 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 위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타는 향내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모세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과 동일시한 짐승을
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다는 것은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단을 지나 본격적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끗한 물이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가야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도
또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손과 발에 묻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이물질들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은
드디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약14m 너비가 5m 높이가 약7m로써
기둥과 골격은 역시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졌고
세 겹의 덮개가 성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덮개는 가장 겉으로는 강인하고 질긴 돌고래 가죽,
양 가죽, 염소 털로 덮여있지만 그 속은 붉고 화려한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세마포 덮개로 덮여있습니다.
이 덮개를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순금으로
만든 일곱 등잔대와 오른쪽으로는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이
있었으며 정면으로는 분향단이 위치해있습니다.

사회자

모세의 말대로 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몇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텐트 안에 그냥 거하시면 되지
어째서 성소안에 복잡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각각의 기구들이 의미하는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제작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시에 모든 기구를 만드는 디자인 책임자였던
‘브살렐’이라는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브살렐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일곱 개의 등잔과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을 놓으라 명하셨죠.
워낙 정교한 작업이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일곱 개의 등잔은 성소 내부를 환하게 비춥니다.



브살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등잔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성막 내부는 물론 온누리를 능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훗날 우리 후손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건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됩니다.

성소의 왼쪽에 일곱 등불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열 두개의 떡을 진열하는 진열상이 있습니다.

이 상 위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 두개의 떡과 손가락 그리고 포도주와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열 두개의 떡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현존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죠. 예수님의 이 주장은 비유를 넘어

정말 정확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면

향품을 태워 향을 발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발하는 곳입니다. 이 향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과 기도를 의미하는데 아침과 저녁,

정기적인 기도가 올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분향할 때 좋은 향기라고

아무거나 올렸다가는 큰 일이 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향을 올려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했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향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분향단 뒤로 커다란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막고있는 커튼으로

일 년에 한 번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커튼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마치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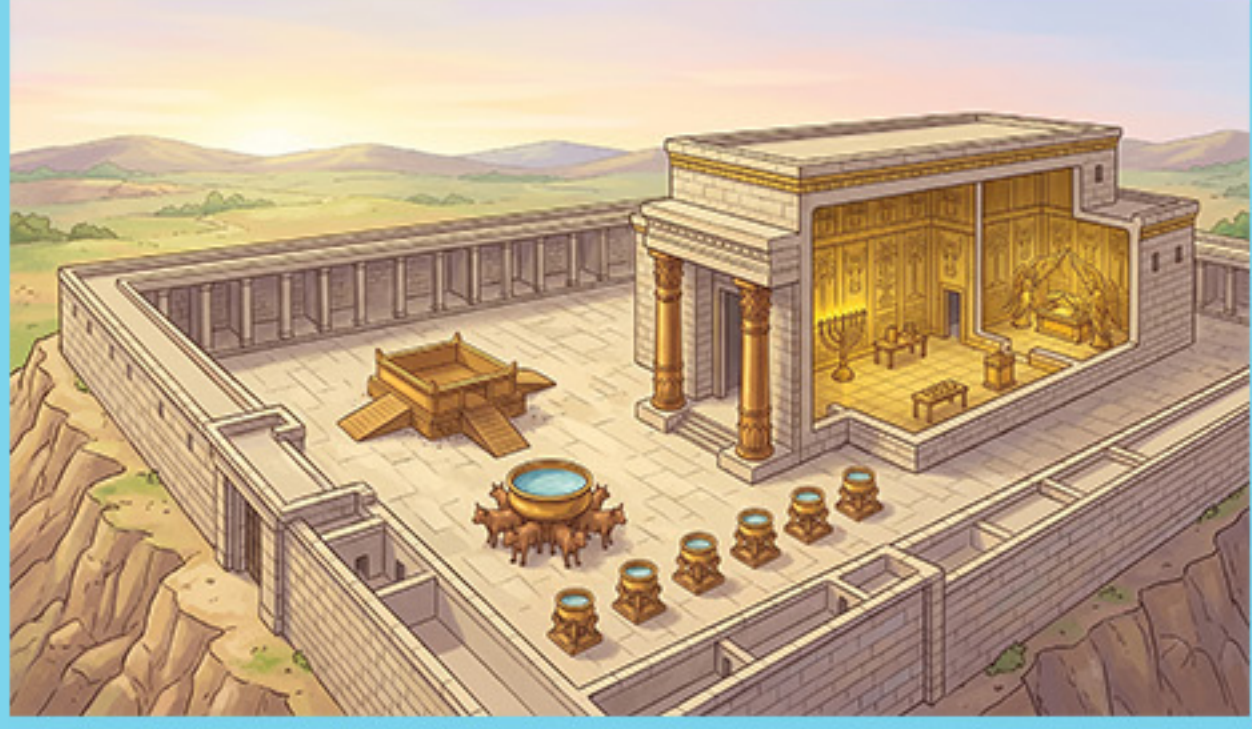
막는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쪽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던 죄가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죠.



사회자

이 모든 사물과 구조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과연 정확히 성막 어디에 임재하셨던걸까요?
이 점을 알아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던 제작진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보자

네, 전에 휘장 뒤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룩한 증거궤가 보이는데요,
이 증거궤는 속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를 담은 향아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위로 두 천사가 날개를 모은 모양을 한
속죄소가 놓여져있는데 이 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속죄소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게 할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과 구름이
이 속죄소에서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우리는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언과 확인을 통해 바로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알려주는 통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분의 말씀을 듣는 성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공동체의
모습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문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이야기 스페셜 에디션 그것이 알고싶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